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2)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4/25 월요일

아침의 누림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골 1:29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골 2:12

12 여러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으로 생긴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골 3:8-10, 12

8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곧 격분과 화와 악의와 모독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9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빌립보서에서 다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움직임 아래 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움직임을 갖고 계시며, 운행하심으로써 움직이신다.

빌립보서 2 장은 빌립보서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총괄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사상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한 심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위해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서 사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혈액 순환이나 전기의 순환에 비유될 수 있다. 만일 우리 안의 피의 흐름이 멈춘다면 우리의 생명은 멈추고 말 것이다. 혈액 순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생명이다. 전기의 흐름은 전기의 운행이다. 만일 어떤 건물 안에서 전기의 흐름이 멈춘다면, 그곳에는 빛이 전혀 없을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169-17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순절운동을 하는 어떤 이들은 소리치고, 울부짖고, 심지어는 뛰어 오르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밖으로 크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운행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밖으로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것은 아니다. 건물 안에 있는 전기의 흐름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아주 좋은 예이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언가가 계속 운행하고 있고, 이 운행은 조용하지만 강력하다.

건물 안에서 운행하는 전기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설비와 기계들과 장치들이 작동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만일 이 전기가 끊어진다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멈춘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체험해 오면서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은 매우 조용하고도 섬세한 운행이라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섬세하고도 조용하게 운행하신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따금 우리와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다. 거듭남과 변화에 관한 진리는 아주 높고 위대하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고 변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어떤 큰 빌딩에서 전기가 운행 중일지라도, 이 운행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기적적인 정상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일이지만 또한 전적으로 기적적인 일이다.

무디(D. L. Moody)는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거듭남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한다. 어떠한 기적도 거듭남보다 위대하지 않다.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 생명에 더하여 신성한 생명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나타남을 많이 볼 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낫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는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지 더 나쁜지는 외적인 문제이다.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내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 '무언가'는 살아 계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떤 사람이 타고난 출생에 따라 외적으로 나쁘거나 좋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조성에 따라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우리가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곧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항목이 위대한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170-1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4/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빌 1:20-21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 4:12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롬 8:4-5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5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엡 1:5-6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빌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인 빌립보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1 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과 표현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2 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밝혀야 함을 보여 준다. 3 장은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어야 함을 보여 준다. 4 장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만족의 비결로 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4 장 12 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비결을 배웠다고 선포한다. 그는 어떤 사람이 비밀 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은유를 사용한다. 사실상 4 장에 나오는 이 '비밀 단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빌립보서 1 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과 표현이시고, 2 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본이시며, 3 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목표이시고, 4 장에서 그분은 우리의 비결이시다.

네 장 모두 에서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어떤 방면이 계시된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16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확대했다고 말한다. 어떤 것을 확대하는 것은 그것이 (무한히)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그것을 높이고 높이 찬양하는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관해 말한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끝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별히 가이사라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4:22) 라고 말한다. 가이사라 집안은 네로의 궁전에 소속된 모든 이들을 포함했다. ... 의심할 바 없이 가이사라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 몇 명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극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위대한 일이다. 만일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곧 영적인 인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빌립보서에 나오는 모든 항목이 위대한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171-172 쪽)

우리의 구원은 단지 어떤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한 인격, 즉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빌립보서 2 장 13 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요한복음 14 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이시고, 아들은 그 영과 하나이시다.

빌립보서 1 장 19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대해 말한다.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그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영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실 수 없다. ... 이 서신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일 하나님 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신(고후 13:3 상, 5)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롬 8:11) 이신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2 장 13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한다.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 안의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에서 시작되어,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다(빌 4:23).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관련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의지 안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신다. 이것은 로마서 8 장과 일치한다. 로마서 8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서도 일하심을 본다(6, 11 절). 우리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뜻을 세우고 우리의 몸 안에서 일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의지를 거쳐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으로까지 운행하신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12 장, 119-1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5-6 장

4/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행 16:6-7

6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마 1:21

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 2:5-8, 15

5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6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8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과 함께한다(빌 1:19). ... 빌립보서 2 장 12 절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한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다른 한 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 빌립보서 1 장과 2 장은 동일한 구원을 말한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 이루어 낸 것이자 그 공급의 결과이며, 또한 이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 내는 것이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2 장, 172-17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행전 16 장 7 절에 있는 예수님의 영과 6 절에 있는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러한 영께서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하는 데,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셨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실재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실재이시다. 만일 우리 에게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실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실재이시자 실재화이신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재가 되신다. (신약의 결론, 성령, 92-93 쪽)

사도행전 16 장 7 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은 특별한 표현이며 ‘하나님의 영’과 그 의미가 다르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영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곳에 가고자 했을 때, 왜 ‘예수님의 영’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왜 성경은 ‘예수님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다. 사도행전 16 장을 살펴보고 이 장에서의 정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장에는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극심한 박해를 겪으셨던 한 사람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고난을 감당하는 넘치는 힘을 가진 한 사람의 영이다. 그분은 한 사람의 영이신 동시에 고난을 견디는 힘을 가진 영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그러한 영 곧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16 장 6 절과 7 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를 인도하고 계셨던 분은 바로 ‘성령’이셨지만, 그 당시의 그 사건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활동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영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1 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1 장, 83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성령, III.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년, 1 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4/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8:9-10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행 2:32-33

32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3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롬 8:2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빌 3:10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엡 1:19-21

19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하나님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보다 그리고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컬을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게 하시고,

엡 2:6

6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이다. 바울은 이 명칭들을 서로 바꾸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로마서 8 장 2 절에 있는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께서 삼일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 그 영, 그리스도—신격의 셋—께서 9 절에 모두 언급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즉 삼일 하나님의 삼일의 영께서 계실 뿐이다(요 4:24, 고후 3:17, 롬 8:11). ...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이 영께서 그리스도, 곧 육체 되신 분인 그리스도의 체현과 실재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분께서는 영원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신성뿐 아니라 육체되심을 통하여 얻으신 인성도 있으시다. 또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분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으로서(롬 8:10),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죽음을 처리하시려고(롬 8:2),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 자신을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즉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살 수 있다.(롬 8:9 각주 4)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분의 영이시다. 주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종결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을 포함한 발아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및 부활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총체이시자 총합이시다. 이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종결과 발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을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능력, 그분의 초월, 그분의 다스리는 권위에 동참한다.(신약의 결론, 성령, 95 쪽)

사도행전 16 장 7 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로마서 8 장 9 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로마서 8 장 9 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서로 바꾸어 가며 사용된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예수님의 영’의 강조점은 인성과 고난을 견디는 힘에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의 강조점은 부활과 생명의 분배에 있다. 사도행전 16 장에서처럼 박해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인성 안에서 고난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로마서 8 장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죽음에는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도행전 16 장에서 박해를 받으며 복음 전하는 일을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러나 로마서 8 장에서 어떤 종류의 죽음의 요소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시므로써 활력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로마서 8 장 9 절의 바로

다음 절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 죽은 것이지만, 영은 ... 생명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10-11 절) 예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시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의 능력’(빌 3:10)에 동참하고, 승천하십시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으로 권위를 얻으신 그분과 동일시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성에 동참하고 고난을 견디는 그분의 힘을 나누어 갖는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 초월, 그분의 다스리는 권위에 동참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1 장, 837-8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그 영, 2, 12 장

4/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 7:39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롬 8:9

9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 14:16-17, 26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롬 8:26-27

26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중보기도 하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그 영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 1:4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계셨지만(창 1:1-2), 그리스도의 영(롬 8:9)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빌 1:19)이신 그 영은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 계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영광스럽게 되셨다(눅 24:26).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은, 육체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불어 넣으셨다(요 20:22). 지금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실재의 영’이시다(요 14:16-17).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다만 신성한 요소만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인간 요소를 모두 갖고 계시며,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재를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 그 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다(요 7:38-39).(요 7:39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1 장 19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요한복음 7 장 39 절에 언급된 ‘그영’이시다. 그 영은 주님께서 육체가 되시기 전의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하나님의 영이시다. 즉 신성을 지니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인성)과 십자가 아래서 인간 생활을 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복합되신 성령이시다. 출애굽기 30 장 23 절부터 25 절까지에서 올리브기름에 네 가지 향료를 더해 만든, 바르는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의 이 복합되신 영의 완전한 예표이며, 지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여기에서 그

영은 사도행전 16 장 7 절의 예수님의 영이나 로마서 8 장 9 절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관련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신 분이시다. 우리가 주님의 인성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고, 주님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다. 바울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인성 안에서 고난당하신 것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두 체험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신 영이시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시자 생명 주시는 영이셨다. 이러한 영은 인간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던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넘치는 공급을 주셨고, 심지어 넘치는 공급 그 자체이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합되신 영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옮겨 부으시기 위한 어린양의 일곱 눈이시다(계 1:4, 4:5, 5:6).

예수님의 영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영은 특별히 그분의 부활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 둘 다와 관련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영이시자 이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땅에서 인성 안에 사셨던 분의 실재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지금은 하늘들과 믿는 이들 안에 동시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되실 분의 실재이시다. 이러한 예수님과 이러한 그리스도의 실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신약의 결론, 성령, 116-11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 2 장; 신약의 결론, 성령, III.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VIII. 성령의 역사(2)

4/30 토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빌 4:11-19

11 내가 궁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2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4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환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5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파하고 나서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계좌로 나와 함께 교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16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 주었습니다.

17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열매가 증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 나는 모든 것을 넘치게 받아서 풍부합니다. 나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여러분이 준 것을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9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서 채우실 것입니다.

벤전 5:5-10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구출을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고난을 견디기 위해 사도에게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 또한 구출받기 위해 사도에게는 높이 오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은 바울이 당시 자신의 상황에 맞서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것이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1장, 838-839 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넘치는 공급이다. 헬라어로 '넘치는 공급'이라는 단어는 합창단의 인도자인 단장이 합창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이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분을 확대한다. ...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확대한다. ...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했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8장, 29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무엇을 포함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먼저, 넘치는 공급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지닌 신성한 인격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넘치는 공급은 신성을 포함한다. 신성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존재와 인격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넘치는 공급은 또한 높아진 인성, 곧 합당한 생명과 생활과 본성과 인격을 가진 인성을 포함한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그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사시고 또한 사람으로서 사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 동안 사시며 통과하신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신성과 주 예수님의 인간 생활을 포함한 인성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있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은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했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모든 죄악된 것들이 끝났다. 이 놀라운 죽음도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도 포함되어 있다.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은 또한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빛이시며, 또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이러한 것들은 그분의 속성들 가운데 몇 가지 항목들이다. 그뿐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 미덕들을 가지고 계신다.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 미덕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복종과 사랑도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서 발견된다. 성경은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엡 5:24-25), 사실상 우리 스스로는 참된 복종이나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 복종 대신 우리는 거역한다. 합당한 사랑 대신 우리에게는 균형 잡히지 않고 일그러진 사랑이 있다.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공급의 성분들에 동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복종할 수 있다. ... 참된 사랑과 참된 복종은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403장, 4106-410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46, 351, 403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18장

5/1 주일

아침의 누림

벤후 1:2-11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8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9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196 장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1.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됐네
부활하신 하나님 사람 승천하여 그 영 되셨네
2.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내 영 안에 그 영이 임했네
그의 모든 실재 이—제 우리 체험 되게 하셨네
3.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모든 성분을 포함하였네
신—성과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감춰져
4. 이 영 안에 포함돼 있네 죽음의 효능 부활의 능력
승천 보좌 권위와 왕국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5. 이 영이 그 모든 성분을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네
그의 기름부음 통하여 나도 주의 풍성 누리네
6. 나의 모든 비결 되—신 만유 포함한 그 영 인하여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어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악보 / 음악 (한 196 / 영 242)

<https://www.hymnal.net/en/hymn/h/242>

2022. 4. 18 ~ 2022. 4. 21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1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 성과 함께 삶,
12 장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5-6 장

신약의 결론, 성령, III.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1 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그 영, 2 장; 신약의 결론, 성령, III
.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 VIII. 성령의 역사(2)